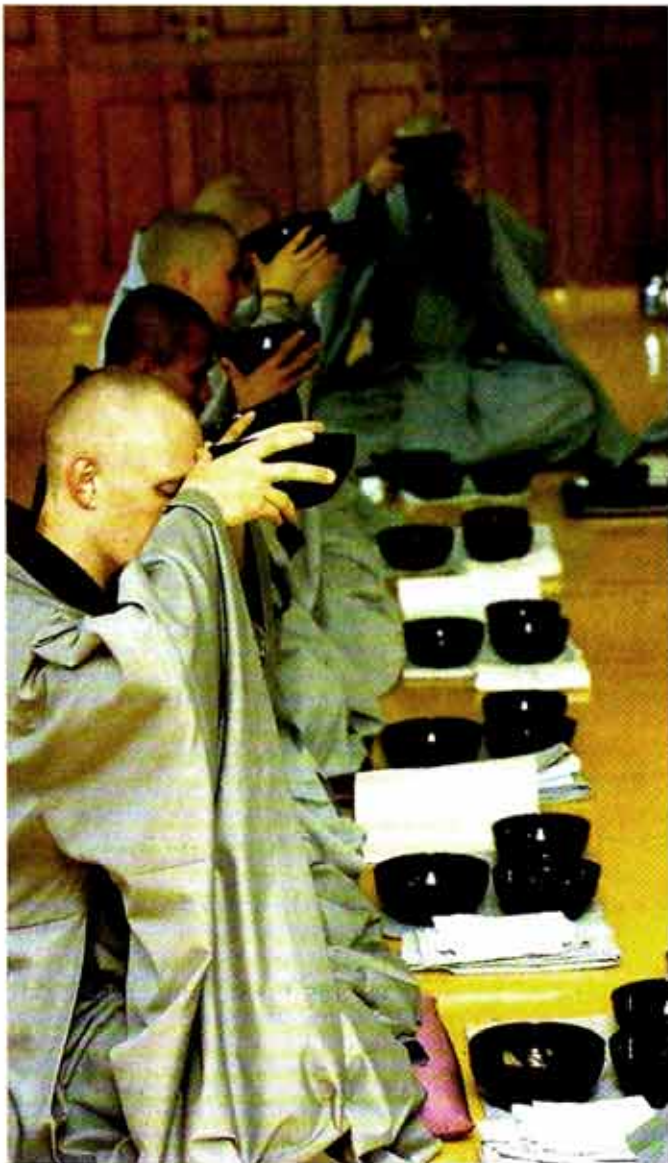


외국인 스님들 불교의식 배우기 '구슬땀'



▷발우를 이마 높이로 들고 공양의 공덕을 생각하고 있는 스님들.



▷불전의식 및 집전 교육에 참여한 눈무른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한국불교 전통의식을 배우고 있다.

조계종 첫 '불전의식-집전교육' 현장

예불·종송·제불통청
목탁과 요령 사용법
가사-장삼 바로입기
서툴지만 정성껏

28일 서울 인암동 보타사. 조계종 교육원 주최로 제1회 외국인 스님 불전의식 집전 교육이 열리고 있는 보타사에는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러시아·방글라데시 이스라엘 인도 등 11개국에서 건너와 화계사 연등불교회관 금강선원 무각사에 출가한 16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불교 전통의식을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정구업집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목포르록, 목포르록..."

새벽 5시 예불을 일리는 도방석 목탁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어 손뼉의 파부에 파르라니 짝한 머리를 한 16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가사를 걸치고 손을 포개 배위에 놓은 차수를 한채 줄지어 나온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법당에 모인 외국인 스님들은 전남 인목스님(불교어산) 작법하고 교장에게 배운 종송의식을 올리며 아침예불을 집전했다. 대부분 처음 해보는 집전이라 어색하고 실수 연발이지만 마음을 다하는 정성은 법당의 새벽공기를 훈훈하게 감싼다.

108배와 참선을 끝마친 비구 스님들은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모두 빗자루를 들고 마당과 주변 골목까지 깨끗하게 쓸어 나갔다. 비구니 스님들은 교육장인 3층 법당과 숙소의 방청소를 깨끗히 했다.

이어 발우공양 시간. 5명의 스님이 한조가 되어 공양간에서 공양물을 가져오고, 16명의 스님들이 발우를 펼치고 공양에 들어간다.

"먼저 발우를 이마 높이로 들고, 이 공양음식이 어디서 왔으며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도 흘리거나 남기면 안됩니다."

니다."

해만스님(해인사 율원의 설명을 듣고, 죽비 소리에 맞춰 공양계를 하며 한 동작 한 동작을 따라 하던 외국인 스님들은 나무 젓가락으로 어렵게 공양을 시작했다.

공양 후 선업스님(국제포교사의 지도에 따라 정근과 목탁 실수가 진행됐다.

"정근은 깨달음을 향해 부지런하고 용맹스럽게 정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쇠가모니불 정근은 쇠가모니불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무 영산불발 학수왕존 시아본사 쇠가모니불"

외국인 스님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습의사 스님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기 일쑤다. 원소집사가 많은 서양인들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스님들은 목탁을 왼손으로 치고, 발을 모으고 의식을 하는 행동규범이 아직 습관화되지 않아 작은 일로 곤욕을 치른다. 외국인 스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한글에도 익숙하지 못한 스님들은 헌문 계송을 암기하기 위해 영어 등 자국어로 뜻과 음을 옮겨 적느라 진땀을 흘린다.

일보스님(연등국제불교회관, 방글라데시)은 "한국에 온지 4년 됐지만 의식을 배운 것은 처음이다"며 "한문으로 되어 있어 경구의 뜻을 알기가 힘들고, 목탁을 어디서 치고 끊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노트에 꼼꼼히 적어 놓았다"고 말한다.



▷가사습의 장면.

긴장과 실수,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열의만큼은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 1시간 교육 후 10여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스님들은 복습을 하느라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런 외국인 스님들을 위해 비구니 습의사 지상스님은 맨투맨으로 접근, 손뼉으로 목탁치는 법을 알려주기에 바쁘다.

쉬는 시간에도 자료집을 들고 입으로는 경전을 암송하고 손으로는 목탁 치는 시늉을 하던 청고스님(금강선원, 미국)은 "출가한 지 8년이 됐지만 한국 사형 스님들이 목탁을 주로 잡기 때문에 의식 집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며 "앞으로 사찰에 들어가면 의식집전을 생활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일스님(회계사, 이스라엘)은 "한국불교의식을 외국인 스님들의 수준에 맞춰 교육, 쉽게 배울 수 있었다"며 "나 자신을 바로보는 좋은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승적을 갖고 있는 6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 전통 불교의식을 쉽게 익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요청을 해오며 따라 조계종 교육원이 처음 마련했다. 외국인 스님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함께 대종생활을 하며, 진철승사의 '한국문화와 불교문화' 강의, 조석예불, 종송, 제불통청(상단, 중단, 하단), 영단의식, 목탁과 요령 사용법, 절하는 법, 가사·장삼 입는 법, 걷는 법, 염불수행법 등을 배웠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사진=고명배 기자

(lygo@buddhania.com)



▷외국인 스님이 요령을 흔들며 의식법을 배우고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연근튀김조림

올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을 지극히 사랑했다. 13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올곡의 천재성은 주위 사람들과 시험관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3년 후 형과 함께 아버지의 출장을 따라 나선 평안도 길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셨다는 비보를 접했다. 올곡의 슬픔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넋빠진 사람처럼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 지금의 고성군 신령빌에 자리한 화암사라는 절에서 의암(義庵)이라는 법명을 스스로 짓고 불문(佛門)에 귀의했다. 화암사에서 1년 여간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필사적인 고행의 길을 걷던 중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고, 영원히 자신의 가슴 속에서 살아 계신다는 깨

비타민 B12 풍부...빈혈에 좋아

달음을 얻었다. 그 후 올곡의 몸은 너무 쇠약해져 마침내 사람의 등에 업혀서 강릉의 외할머니덕 오죽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올곡은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헛소리마저 하던 올곡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하는 행복의 밤을 보냈다. 경포호수에 곁게 펼쳐진 연꽃 밭에 사뿐히 내려온 사임당이 올곡에게 부리를 뽑아 한아름 건네주는 게 아닌가. 꿈이었다. 진땀에 젖은 올곡은 어

머님이 전해준 경포대의 연부리를 찾아 죽을 끓여 먹고 점차 몸이 회복되었다. 그 해에 유명한 자경문(自覺門) 11조를 완성하고, 다음해에는 한양의 부호였던 노경린의 팔과 혼인을 맺었다. 올곡 선생은 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평생 밥상에 연근을 빼놓지 않았다. 연근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므로 수험생과 직장인, 주부, 노인, 어린이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다. ■ 약선식연구가, <신사에가면특별한식단이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연근, 녹말물, 올리브유, 간장, 조청, 콩가루
요리법 ① 연근을 모양이 잘 나도록 둥글게 썰어 녹말물을 골고루 입힌다. ② 위의 연근을 올리브유에 노릇하게 튀긴다. ③ 냄비에 간장과 조청을 넣고 끓이다가 거품이 보일거리면 튀긴 연근을 넣어 조리한다. ④ 연근튀김조림을 접시에 담고 깨를 뿌려낸다. * 연은 단음식이므로 소금이나 간장은 보통의 반만 넣어도 된다.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소모성 질환의 환자에게 좋고 빈혈이나 가슴이 항상 뛰고 불안한 사람에게 좋다.